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비리,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 감사서 보조금 부정수령·유령 직원 급여 등 무더기 적발 25명 징계 요구·41명 수사 의뢰...공법단체 뼈 깎는 자정 노력 필요

단독 보도 국가보훈부 감사서 국가 보조금 부정수령,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5·18단체들의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단체 내부 고소·고발전에 소송전까지 이어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공로자회)'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2023년 9월8일자 광주일보 6면)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에 게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를 했다. 구체적으로 부상자회에 기관경고, 총 16명(중복포함)에 대한 징계처리, 1명에 대한 신

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을 포함해 오월며니집관장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부상자회 전 간부 A씨 등 23명(중복포함)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공로자회에 대해서는 9명(중복포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정성국 전 회장을 비롯해 간부 A씨를 포함해 총 18명(중복포함)에 대해서도 사기,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 동안 부상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국가보훈부가 보낸 처분요구서에는 보조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비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부상자회에서는 '허위근로자 등재로 인한 국고 보조금 부정수령', '상임부회당 수당 부적절 지급', '법인차량 사적사용', '지부운영비 부적절 집행', '수익사업 부적절 승계', '부적정한 회계처리 승계' 등 9개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공고나 채용절차 없이 임명하면서 허위로 직원 3명을 등재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교부 받았다.

3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4000여만원(국비 3400여만원, 부상자회자부담 540여만원)에 달했다. 국가보훈부는 부정수급한 이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부정수령액 3400여만원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부상자회 간부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총 3700여만원의 상근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부상자회에서는 지난 2022년에 국고보조금 4000만원으로 중고차 3대를 구입했으나 이 중 한 대를 A씨와 배우자가 1년 여 동안 사적으로 사

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변경되면서 기존 수익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비리도 적발됐다.

승계과정에서 자산을 적게 취득하고 부채가 과다 인수되지 않게 해야 함에도 2억2700여만원의 현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

또 부상자회 산하 수익사업체가 6200만원을 주고 산 고급 차량을 수익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원에 팔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사회 의결없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상품 5건을 중도 해지해 총 1억 45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총 4억여원을 차입해 개의 원에게 개인별로 30여만원씩 지급했고, 전남도 교육청과 학생 대상 5·18 교육 명목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트북 20대를 배부 받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도 않고 15대는 외부로 반출했다.

공로자회는 채용한 운전원 2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800여 만원의 급여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부회장에게 23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공로자회는 업무용 차량 구매용 보조금으로 3200여만원으로 차량을 사들여 한 달 후 2500여만원을 받고 되팔고 수입금을 자부담 통장에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

43주년 5·18 부활제에서 만장기를 들지 않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 사회단체의 한 간부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공법단체가 설립됐음에도 40여년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내부 비리로 인한 알력싸움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5월 단체들이 뼈를 깎는 자정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날 물폭탄...전남 농경지 곳곳 피해

오늘 오후부터 다시 빗방울

어린이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에 광주·전남에 물폭탄이 쏟아져 곳곳에 생채기가 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동안 평균 100.7mm의 비가 내려 도내 농경지 1723.1ha에서 17억5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보성 267.5mm, 광양읍 265.0mm, 고흥 포두 231.0mm, 순천시 226.0mm, 여수산단 188.5mm, 장흥 관산 181.0mm, 구례 피아골 162.0mm, 완도 139.9mm, 강진 129.4mm 등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도 무등산 86mm, 광산구 77mm, 북구 62.3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5일 하루 광양과 진도는 각각 198.6mm, 112.8mm의 비가 내리며 5일 일강수량 극값(최대치)을 경신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피해 신고가 이어졌고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했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전망대 인근 도로 등 3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2곳에서 도로침수가 발생했다.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서는 전날 오후 2시께

교각 골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일가족 4명이 구조됐다. 같은날 오후 9시 40분께에도 광양시 광양읍 한 하천 인근을 지나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침수돼 운전자가 대피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농경지 피해가 컸다. 추수를 앞둔 보리와 귀리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해남 황산·문내·산이면 등지에서는 1200ha의 보리, 귀리(12억원)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드러누웠다.

고흥군 포두면에서는 조생 벼 80ha(5900만원)가 물에 잠겼고, 강진군 도암면 50ha(3700만원), 순천 낙안·도사면 18ha(1800만원), 보성 조생·득량면 11ha(1100만원) 등 수확기를 앞둔 보리류가 비바람에 쓰러졌다.

비는 7일 오전 중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다. 8일까지 강수량은 5~20mm로 예상된다.

또 전남해안을 중심으로 초당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서해남부와 남해서부에서 물결도 높게 치겠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내려가 7일 아침최저기온은 12~14도, 낮최고기온은 16~21도를 보이겠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바람에 날라가는 오월영령 추모 글 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을 추모하는 글귀를 적은 리본이 바람에 날라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동성 위기' 한국건설 법인회생 신청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자금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국건설이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했다.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한국건설 주식회사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한국건설이 회생신청서에서 제출한 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2820억원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

령이 떨어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의 채권 회수와 자산 처분 절차가 동결된다.

이후 법원 판단을 거쳐 회생 작업에 들어가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다.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건설사 10여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한국건설까지 회생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건설업의 비중이 높고 업체간 서로 얽여 있는 특성 탓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정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다른 업체까지 악영

향이 미치는 '도미노 현상'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건설이 법인 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한국건설에는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다는 업계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건설은 지난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한국건설이 공사중인 광주시 북구 신안동, 동구 공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현장에서는 계약자들이 임대보증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입마개 안해 보행자 물려...전주 벌금 200만원 선고

사냥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행인에게 피해를 준 견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0시 20분께 담양군의 한 산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훈련하던 진돗개가 행인을 무는 바람에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는 개에 물린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긴 바지를 입어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을 수 없고 A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 최초 피해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개에 물린 상처가 맞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